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3년 04월 29일
(월요일)

강북신문 3면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 송중동 체류장 현장방문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백균)가 지난 22일 송중동 체류장 현장을 방문했다.

송중동 체류장 현장은 어린이들이 체류장에 추락한 사고가 일어난 곳으로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철저한 사고예방을 하기위해 현장을 방문하게 된 것.

유 의원은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관리에 신경을 썼더라면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관리 소홀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했다.

유 의원은 체류장 시설물 주변 펜스를 높이 2m로 교체해 줄 것과 어린이들이 추락한 체류장 바닥 준설을 위한 작업투입구는 더 두꺼운 철판으로 교체하고 볼트를 이용해 철판을 고정시켜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교체 및 설치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서울포스트 4면

복지건설위원회 체류장 현장방문 실시

신상발언에 이어 현장방문 통해 송중동 체류장 문제점 지적



지난 22일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백균)소속 의원들이 송중동 체류장 현장을 방문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백균)가 지난 22일 송중동 체류장 현장을 방문했다.

송중동 체류장 현장은 어린이들이 체류장에 추락한 사고가 일어난 곳으로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철저한 사고예방을 하기위해 현장을 방문하게 된 것. 이와 관련 지난 15일 강북구의회 제16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군성 의원이 송중동 체류장의 관리소홀과 12년 이상 된 철판이 사고 불렀다며 신상발언에 나섰다.

유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상습침수 지역을 해소하기위해 2001년도에 체류장을 신설해 주민들의 침수피해를 막았다"고 밝히고 "지난 11일 저녁 어린이 두 명이 체류장 바닥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바브켓 두점의 철판위에서 뛰어 놀다가 7m아래로 추락해 수심 130cm의 오물투성이의 체류장에서 키150cm의 누나가 키135cm의 동생을 업고 살려달라고 외쳤고 다행히 지나

가던 중학생들이 그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해 두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관리에 신경을 썼더라면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비가 많이 쏟아질 경우 노면 물을 체류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설치한 그레이팅은 시멘트로 막혀 있었으며 그러한 시설에 주차선을 그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리 소홀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했다.

지난 22일 송중동 체류장현장을 방문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체류장 시설물 주변 펜스를 높이 2m로 교체해 줄 것과 어린이들이 추락한 체류장 바닥 준설을 위한 작업투입구는 더 두꺼운 철판으로 교체하고 볼트를 이용해 철판을 고정시켜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교체 및 설치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